

꽃피는 순서대로 미달?... 지방대 추가모집 전년비 2.6배 ↑

(2만3767명)

대학정원보다 학령인구 더 적어
홍익대 47명으로 서울권 '최다'
단국대 등 의대·치대서도 발생
지방대학 타격 커... 미충원 우려

학령인구 감소 여파로 2021학년도 대학입시 추가모집 인원이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2021학년도 대학 정시모집을 마감한 결과 광운대, 국민대, 동국대, 서울과학기술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비롯해 계명대와 고신대, 단국대 등에서는 의학계열에서도 추가합격을 모집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 올해는 학령인구가 대학 정원보다 적은 '역전 현상'이 본격화하면서 지방권 소재 대학의 추가모집 인원이 급등했다. 지방권 소재 대학의 전년도 정시 추가모집 인원이 지난해 8930명에서 올해는 2만3767명으로 전년 대비 2.6배 늘었다.

◆서울 소재 대학, 전년비 49% 증가

22일 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전국 대학 중 추가모집 인원이 가장 크게 발

〈전형유형별 추가모집 인원〉

단위: 개교, 명

전형 유형	2020학년도(B)		2021학년도(A)		전년대비 증감현황(A-B)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대학수	모집인원
학생부위주(교과)	63	4,108	71	9,920	8	5,812
학생부위주(종합)	29	773	33	1,074	4	301
수능위주	129	4,727	123	14,683	-6	9,956
실기/실적 위주	14	197	20	398	6	201
기타	10	25	14	54	5	29
합계		9,830		26,129		16,299

2021.02.21 18시 기준.

/대학교육협의회

생한 곳은 대구대다. 대구대는 2021학년도 추가모집에서 876명을 선발한다. 이어 ▲부산 동명대 804명 ▲강원 상지대 769명 ▲전북 원광대 766명 ▲부산 신라대 746명 순으로 지방권 대학에서 추가모집 인원이 크게 발생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전년 1022명에서 1502명으로 47% 증가했다.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는 종교대학을 제외하고는 ▲한국산업기술대 253명 ▲신경대 181명 ▲안양대(강화) 82명 순이다.

서울권 소재 대학도 전년 488명에서 727명으로 239명 늘었다. ▲홍익대 47

명 ▲한성대 44명 ▲서울과학기술대 41명 순(종교대학 제외)이며 이외에도 국민대, 동국대 등 서울 주요 대학을 포함해 지방 거점 국립대에서도 추가 모집을 추진한다.

의대와 치대, 한의대 등 의학 계열에서도 추가모집 인원이 발생했다. 계명대와 고신대, 부산대, 을지대에서 각 1명, 단국대 의예과에서 2명을 추가모집한다. 이밖에 ▲치대 8명(단국대 3명, 원광대 2명, 강릉원주대 1명, 부산대 1명, 전북대 1명) ▲한의대 3명(가천대 1명, 상지대 1명, 우석대 1명) ▲수의대 1명(전북

대 1명)도 추가모집이 발생했다.

◆학령인구의 감소로 지난해보다 2배 넘게 증가

전국 대학 중 162개교에서 2021학년도 추가모집을 통해 역대 최고치인 2만 6129명을 모집한다. 올해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2020학년도에 비해 1만 6299명 증가해 두 배 넘게 늘었다.

전형유형별로는 123개 대학이 수능전형에서 1만 4683명을 추가모집에 나선다.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71개 대학이 9920명, 학생부(종합)전형은 33개 대학이 1074명의 추가모집을 한다. 특히 지난해 4727명이던 수능전형의 추가모집 인원은 올해 가장 크게 늘었다.

이 외에도 실기·실적위주전형에서 20개 대학이 398명을, 기타전형에서 14개 대학이 54명을 추가로 뽑는다.

추가모집기간 동안 수시모집 및 정시모집의 등록포기자가 발생할 경우 선발 대학과 모집인원은 상시 변경될 수 있다.

지방권 소재 대학에서는 미충원 인원이 큰 폭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수업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지방권 소재 대학은 반수, 편입 등을 위한 3월 개학후 이탈 현상도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 높다"며 "지방권 소재 대학 학생들의 이탈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추가모집은 수시모집에 합격·등록한 사실이 없거나, 2월 19일 16시까지 정시모집 등록을 포기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산업대학, 전문대학 정시모집 합격자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있다.

유웨이교육평가연구소 이만기 소장은 "이번에 수시와 정시에서 실패한 수험생들은 좌절하지 말고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추가모집 요강을 확인한 후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정시모집 합격선보다 비교적 높게 합격선이 형성되기는 하지만 2021학년도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도전해 보기를 권한다"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내년부터 예비교사 정원 3200명 줄인다

교육부,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한국외대 30% 감축 등 12% ↓ 창원대 등 4곳은 교직과정 폐지

내년부터 예비교사가 될 수 있는 교원양성기관의 정원이 3200여명 줄어든다. 지난해 교육부 평가에서 하위성적을 받은 기관을 중심으로 교원양성 정원 2만 6000여명 중 12%가 줄어드는 셈이다. 특히 한국외대를 비롯해 고려대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등 일부 서울 주요대학들도 정원 감축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진단은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는 5주기 진단평가의 2~3차년도에 해당한다. 4년제 사범대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 154개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 결과에 따라 상위등급인 A~B 등급은 현행 정원을 유지하지만, C~D 등급은 정원 감축해야 한다. 감축 규모는 C등급은 정원 30%, D등급은 50%이다. E등급은 교원양성기능이 폐지된다.

교원양성기관별 역량 진단 결과를

살펴보면, 사범대학 45개교 중에서는 건국대, 이화여대, 인천대, 중앙대 등 11개교는 A등급을 받았다.

서울대, 고려대, 인하대, 한양대 등 33개교는 B등급을 받았다. 한국외대는 C등급을 받아 내년 사범대 입학정원 30%를 줄여야 한다. 한국외대가 지난해 공개했던 2022학년도 사범대 모집정원은 119명으로, 이 중 36명을 감축하게 된다.

일반대학 교육과 105곳 중에서는 부경대와 창원대 유아교육과 등 11개 학과가 C등급을 받으며 30%를 감축하게 된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유아교육과는 D등급을 받아 정원 50%를 줄여야 한다. A등급은 덕성여대, 순천향대 등 28개교, B등급은 65개교다.

교직과정에서는 126곳 중 98개교가 정원을 감축하거나 폐지 대상으로 분류됐다. 부경대, 창원대, 한성대 등 3개교는 E등급을 받아 2023년부터 교직과정을 폐지하게 된다. C등급은 백석대, 서강대, 홍익대 등 64개교, D등급은 동덕여대, 서울시립대 등 31개교다. A등급을 받은 대학은 광주여대가 유일하다.

교육대학원 양성과정은 ▲C등급 33개교 ▲D등급 12개교 ▲E등급 1개교

다. E등급을 받은 부경대는 양성과정을 폐지해야 한다. D등급에는 경상대, 전북대, 충북대 등 지역거점국립대도 포함돼 이들은 정원 50%를 줄여야 한다. 성균관대, 서강대, 중앙대, 한양대 등 서울 주요 대학도 C등급에 지정되면서 정원 30% 감축 대상이다.

교육대학원 재교육과정에서는 제주국제대 1개교가 E등급을 받아 폐지 대상이다. D등급에는 서울여대, 신문대 등 30개교, C등급에는 서강대 등 49개교가 포함됐다.

특히 지난해 평가 결과 사범대학이나 일반대학원 교육과보다 일반대학 교직과정이나 교육대학원 중 역량이 떨어지는 곳이 많았다. 이번 진단 결과로 ▲사범대와 일반대 교육과 130여명 ▲교직과정 1800여명 ▲교육대학원 1200여명 등 총 3200여명의 정원이 줄어든다. 교직과정의 경우 2022학년도 신입생이 1년 뒤 교직과정에 진입한다는 점을 고려해 2023년에 감원이 적용된다.

이번 평가는 서류평가와 대학 인터뷰 등을 통해 확인·점검했다.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화상 인터뷰로 진행했다.

/이현진 기자



22일 오전 전남 나주시 대호동 동신대학교에서 비대면 졸업식·학위수여식이 각 학과별로 열린 가운데 한 졸업생이 아버지에 게 학사모를 씌워주고 있다. /뉴스1

‘또 비대면 강의’... 기숙사 떠나는 대학생들

알바콜 ‘새학기 비대면 개강’ 설문 97% 비대면 수업... 주 1.4회 등교 학교 근처 자취 접고 본가로 귀향도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전국 대학에서 비대면 수업을 예고하면서 새 학기 대학생들의 등교 횟수는 주 1.4회에 그쳤고, 일부 학생들은 기숙사, 원룸에서 떠나 귀향한 것으로 조사됐다.

알바콜이 ‘새학기 비대면 개강’을 주제로 설문 조사한 결과, 새 학기 비대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97.1%에 달했다. 전면 비대면은 55.1%로, 대면과비대면을 혼용해 수업이 예정됐다고 답한 비율은 42%다. 대면수업은 2.9%에 그쳤다.

응답자들의 새 학기 총 수강 학점은 평균 14.4점으로, 그 중 비대면 과목 수강 학점은 11.6점이다. 특히 원격수업이 전체 개설학점의 80%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올해부터 일반대학은 원격수업을 학점 및 이수가능 학점제한 없이 대학 자

율로 개설할 수 있게 됐다. 지난달 교육부의 ‘2021년 주요 정책 개선타향 24선’ 발표에 따르면 일반 대학의 원격수업 핵심 규제가 폐지됨에 따라 대학들이 원격 수업 학점 및 이수 가능 학점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이번 조사에서 대학생들이 학교에 직접 출석하는 일수는 주 평균 1.4일로 집계됐다. 반대로 비대면 수업으로 학교에 안가는 일수는 주 평균 4.1일로 3배 가량 높아졌다.

이에 따라 학교 근처에 원룸을 마련했던 일부 학생들은 본가로 귀향(21.7%)하거나 이사(17.2%)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귀향을 선택한 이유로는 ▲비대면 수업이 늘어남에 따라 ‘등교하지 않아도 학점이수가 가능해서’(37.4%) ▲학교 근처 거주이점이 없어져서(21.7%) ▲월세 및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39.1%) 등이 있었다.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된 이번 설문에는 대학생 및 대학원생 총 614명이 참여했다. 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는 ±3.95%이다. /이현진 기자

아주대 연구팀 “균일 나노입자 합성 가능”

충남대·취리히연방공대 공동연구 미세 유체소자 기반 반응기 개발

김주민 아주대 교수 연구팀을 필두로 한 공동 연구진이 균일한 나노입자를 합성할 수 있는 미세유체공학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했다. 이에 현장 의료 진단기기를 비롯한 미세유체공학 관련

기술에서의 시료 전처리와 반응 공정 등에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주대학교는 22일 김주민 화학공학과·대학원 에너지시스템학과 교수 연구팀이 이창수 충남대 교수, 스위스 취리히연방공과대학 이형식 박사와의 공동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방식의 미세유체소

자 기반 미세 반응기를 개발했다고 밝혔다. 김주민 교수 공동 연구팀은 묽은 고분자 용액에서 발현하는 유동 불안정성이 수축과 팽창이 반복되는 구조를 지닌 구부러진 미세유체에서 크게 향상되는 것을 발견해 이를 고효율 미세혼합기 개발에 적용했다.

연구팀은 실제 수백 나노미터 크기의 실리카 입자 합성에 새 미세혼합기를 적용해 균일한 입도 분포를 갖는 구형 입자 합성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이현진 기자